

지역 매아리



부안서-보안협력위원회 간담회  
탈북민 정착지원 방안 등 토론했다

부안경찰서는 지난 14일 보안협력위원회와 경찰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탈북민 정착지원 방안 등을 위한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날 개최된 회의는 부안경찰서 치안 소식 등 2018년 중점 추진 업무를 설명하고, 보안협력위원회의 탈북민·다문화 여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방안 등 추진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우식 보안협력위원회 위원장은 "탈북민이 우리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보안협력위원회가 지속적으로 힘을 모으고 국가보안 중요성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동민 경찰서장은 "국가보안의 든든한 조력자인 보안협력위원회의 탈북민·다문화여성 정착지원에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탈북민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기적의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정읍기적의도서관이 이달부터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기적의 도서관은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적의 도서관은 성인 대상의 '동화구연 자격증반'을 비롯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북스타트, 역사와 과학을 주제로 한 어린이 프로그램을 비롯 방학 특별 프로그램 등 연령별, 주제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적의 도서관은 단순한 이해와 학습 중심의 활동보다는 도서관 책을 활용하고 연계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책과 프로그램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고 시민 스스로 도서관을 찾고, 책을 읽고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취지다.

한편 동화구연 자격증반은 학부모들의 자녀 독서 지도에 큰 도움을 주고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제2 취업의 길을 제공하는 물론 자기 계발 기회도 되고 있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 선진 상수도행정 만족도 높아

고창군 원격검침 시스템, 민원응대 효율성·유수율 상승 등 기여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상수도 검침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면 구축한 원격검침 시스템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군에 따르면 최종 검침 값만 확인 할 수 있던 기존의 검침 방식에 비해 원격검침은 수용기의 계량기 지침 값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응대 효율성이 높아짐은 물론 배수지별 상수도 사용량을 분석해 누수 탐사반 운영에 활용하는 등 유수율 상승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원격검침을 활용해 주민복지와 연계한 '부모안심톡'과 '누수알림' 서비스도 군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부모안심톡'은 어르신 가정에 수도 사용량을 분석하여 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경우 혹시 모를 위급 사태에 대비해 건강상태 체크를 위한 확인 전

화를 해 주는 서비스로 현재까지 200여건 시행되어 홀로 어르신의 고독사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48시간 이상 가정누수 경보 시 수용기에 문자 알림을 주는 '누수알림' 서비스의 경우도 올해 들어 1000여건 이상 통보했으며, 이를 통해 전년대비 19%의 누수량 감소와 약 3억 원의 불감률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듯 고창군이 상수도 선진행정을 구현하는 지자체로 알려짐에 따라 원격 검침 벤치마킹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서울시의회 전문위원과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등이 고창군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원격검침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들었으며 부천시와 인천시 등 20여개 이상의 시·군에서 원격검침에 관련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원격검침 시스템'이 이처럼 군민

만족도를 높이고 모범 사례로 좋은 성과를 보임에 따라 군은 한 발 더 나아가 하반기에 이를 활용한 이메일 문자 등의 전자고지서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고지'를 함으로써 종이 고지서 발송에 소요되는 예산 절감과 고지서 분실 등 우편발송으로 인해 야기되는 민원불만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원격검침 시행으로 수도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실시간 검침으로 누수를 막을 수 있어 비용절감 효과와 주민 복지에도 연계해 주민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자체 R&D 역량 강화 · 특화기업 유치 앞장

정읍시, 정읍첨단과학산업 미래비전 2030 계획 세미나

정읍시는 최근 '정읍첨단과학산업 미래비전 2030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는 세미나를 가졌다.

신정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대강당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정읍 소재 연구기관과 전라북도 각급 전문가 관련 기업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읍첨단과학산업 미래비전 2030 계획'은 기존의 연구 용역 방식이 아닌 전라북도내 각급 전문가들과 교수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한 시가 직접 참여해 수립됐다.

관련해 시는 "그간 연구기관 확충과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연계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7개월에 걸쳐 계획을 수립했다"

고 밝혔다. 계획서는 계획 수립 배경과 필요성 과학기술 정책 동향, 국내외 혁신 사례와 정읍시의 과학기술 경쟁력에 대한 분석을 거쳐 도출한 대안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정읍 소재 연구기관과 전라북도 각급 전문가 관련 기업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이수현 시 특구지원과장의 추진 경과 발표,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전북대 양시영 교수의 미래비전 2030 추진 전략 발표에 이어 전문가 그룹이 패널을 나눈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농축산 융복합과 바이오 소재 융복합, RFT 소재 융복합 등 3대 현안 해결형 특화산업 육성과

R&D 전담기관과 조직운영 부분을 통한 산학연관망 네트워크 강화, 지역주도의 문제 해결형 R&D 지원, 전담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고 참여자들 또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세미나는 지역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아가기 위해 나섰다"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세미나를 계기로 정읍소재 정부출연 연구소와 연구개발특구 등 첨단과학 산업 기반시설이나 관련 기관 네트워크(network)를 통해 자체 R&D 역량을 강화하고 특화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 정읍시보건소, 감염병 발생 취약지역 방역소독

정읍시보건소가 이달부터 감염병 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시 보건소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곤충을 매개로 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데다 감염병 집단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빈틈 없는 방역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 보건소는 매일 물용염이와 유수관 맨홀 정화조, 공중 화장실 등에 유충주제 약제를 살포하고 있다. 건강을 위협하는 모기의 유충이 성

충으로 부화되기 전 유충단계에서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장미철과 하절기에는 해충에 의한 피해 확산을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철저하고 강화된 소독 강화로 감염병 없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 고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인성교육 프로그램 '버추 프로젝트'

아동센터 종사자 대상

고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고창군 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버추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버추 프로젝트'는 1991년 캐나다 출신의 정신요법의사인 린다 캐벌린 포포프와 그녀의 남편 덴 남동생 존에 의해 공동으로 창안됐다.

세 사람은 인류사회의 다양한 세계종교의 문헌을 비교해 인류사회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가치 300여개를 선별하고 그 가운데서 다시 52가지를 선별해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자신의 내면에 있는 미덕을 일깨우고 이를 효과적으로 연마하도록 돕는 5가지

전라과 관련 활동으로 개발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이후 청소년 폭력 자살방지, 지역사회 갈등해소 등에 효과가 입증되어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번 버추 프로젝트는 전문 강사인 김경옥 박사의 진행으로 버추(미덕) 소개, 인사, 빙고 보석 이름표 만들기 등 버추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내면에서 미덕을 찾는 시간들로 채워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그동안 잊고 있던 나의 강점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자신감이 생겼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 오늘 배운 미덕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고창군, 국도 22호선 4차로 확포장 사업 추진 총력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해리~공음 간 국도 22호선 4차로 확포장 사업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8일 군에 따르면 박우정 군수는 최근 김철홍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만나 해리~공음 간 국도 22호선 4차로 확포장 사업 추진에 따른 당위성을 설명하고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해리~공음간 국도 22호선은 고창군 동호·구시포해수욕장과 선운산도립공원 등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는 기능을 하는 간선도로로 현재는 도로폭

이 매우 협소하고 선형도 불량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고 고창군 관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군을 찾는 관광객 수가 매년 600만 명을 넘는 상황에서 도로 이용자의 교통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한 한빛원전 인근 지역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에 고창군민을 비롯한 타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긴급 대피가 가능한 대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차로 확포장이 필요함을 강력히 요청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부안군, 자동차세 ·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안군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2018년 상반기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군은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 및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자 및 상습체납을 근절하려고 재무과와 읍면에서는 합동 영치반을 구성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군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은 5774대로 체납금액 28억 2000만 원에 달하며 번호판 영치 대상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체납차량으로 영치활동 중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선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ANGSANMYEONGJU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걸림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번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열매가 익어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호 | 375ml 5ea/13% |

부안강산뽕주  
Premium Ohdi Wine

GIFT SET 3호 | 750ml 1ea/12% |  
GIFT SET 6호 | 500ml 3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일반 | 375ml 2ea/13% |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